

입암산성

입암산 정상으로부터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는 입암산성은 정형적인 포곡식(산의 능선에 따라 쌓은) 석성이다. 예로부터 정읍과 장성의 경계이자 노령산맥의 주맥인 입암산은 지형이 높고 험하기로 유명한데 특히 입암산성 지역은 외부에서는 살펴보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천연의 요새지역이다.

입암산성이 처음 축성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지형적 원인으로 삼한시대부터 산성이 축성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 또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견훤이 왕건에게 나주지방을 빼앗긴 후 후방으로부터 쳐들어오는 고려군을 막아내는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입암산성이 처음 기록에 보이는 것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인데 고려 고종 43년(1256) 장군 송군비(宋君斐)가 몽고 침략군에 맞서 승리를 거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도 적상산성, 금성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으로 수축과 개축을 거듭하였고 정유재란(1597~1598) 때에는 윤진(尹軫:1548~1597)이 의병을 모아 왜병에 대항해 끝까지 항쟁하다 순절한 곳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수축한 기록이 보이고 있어 조선시대 군사요충지로 인식되었던 곳이다.

입암산성의 폐성 된 시기는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1894년 갑오개혁시기를 전후하여 근대적 군사제도가 도입되어 폐성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입암산성의 실질적인 군사적 역할도 사라지게 되었다.

입암산성 약사

- . 초축연대 : 미상(삼국시대로 추정)
- . 고려시대
 - 고종43년(1256): 송군비 장군이 몽고군과 싸워 승리
- . 조선시대
 - 태종10년(1410): 교룡산성(남원), 금성산성(담양), 이흘림산성(완주), 수인산성(강진), 금성산성(나주)와 함께 수축.
 - 세종16년(1434): 읍성이 중요시 되면서 산성인 입암산성 폐성화 됨.
 - 선조26년(1593): 임진왜란 당시 장성현감 이귀와 윤진이 성을 수축.
 - 선조27년(1594): 산성 내에 사찰 건립.
 - 선조30년(1597): 정유재란 시 윤진, 판암이 의병을 모아 외적과 싸우다 순절.
 - 효종 4년(1653): 장성현감 이유형(李惟馨)이 산성을 확장 개축.
 - 숙종 2년(1676): 장성부사 홍석구(洪錫龜)가 산성을 확장 개축.
 - 영조18년(1742): 산성내 윤진 순의비 건립

③ 입암산성 기본 현황

- . 성의 규모
 - 둘레: 약 5,200m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5,620m로 기록.
 - 높이: 지형에 따라 1~3.7m 내외.
- . 성곽시설물
 - 성문: 문헌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고 있으나 현재 남문지와 북문지 1개씩

이 남아 있다. 특히 남문은 성곽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 암문: 암문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비밀 문으로 입암산성에는 현재 서측·북측·동측의 3개의 암문지가 발견되었다.

- 장대 및 포루: 장대는 먼 곳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든 높은 건축물로 주변을 경계하거나 전쟁 시 지휘를 하기위하여 만들었다. 특히 포대를 갖추고 있는 곳을 포루라 부르기도 한다. 입암산성의 장대 및 망대지는 동서남북 4개의 장대지, 입암망대지와 망덕봉 망대지의 6개소의 터가 남아 있다.

. 성내 시설물

- 관아터: 문헌에 의하면 별장소(別將所)혹은 진헌(鎭軒:진의 동헌) 등을 표현되어 있는 관아건물이 기록되어 있고 관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터가 발견되었다.

- 창고터: 입암산성은 주변의 속읍(屬邑)의 군량미를 저장하는 군향고(軍餉庫) 7개소와 무기를 보관하는 군기고(軍器庫) 5개소 소금을 저장하는 염산고(鹽山庫)와 된장, 간장 등 장을 저장하는 장고(醬庫)가 있었다고 한다.

- 사찰터: 문헌에 의하면 안국사(安國寺)를 비롯한 절과 암자가 5개소 있었으며 특히 안국사는 승병장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윤진순의비

윤진순의비는 영조18년(1742)년 장성부사 이현윤이 세운 것으로 전라도관찰사 권적이 글을 짓고 이현윤 자신이 글씨를 쓴 비석이다. 비석은 화려한 장식 없이 단순한 지붕돌을 얻어 만들었으며 지대석은 땅속에 묻혀있다. 앞면과 뒷면에 전서(篆書)체로 증좌승지윤공순의비(贈左承旨尹公殉義碑銘)는 비명이 맨 윗부분에 쓰여 있고 내용은 해서(楷書)체로 썼다. 조각수법이 화려하거나 뛰어나지 않지만 정유재란 때 순절한 윤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할 수 있다.

※입암산성과 윤진

윤진(尹軫)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계방(季邦)이고 호는 울정(栗亭)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일찍이 김인후 선생이 후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입신양명에 관심이 없어 과거를 보지 않았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성으로 내려와 김경수(金景壽)를 맹주로 한 장성 남문창의에 참여하여 종사로 활약하였고 왜적이 장차 전라도로 침입하여올 것을 예견하고, 전라도관찰사 이정암(李廷菡)에게 입암산성(笠巖山城)의 수축을 건의하였으며, 이 건의가 허락되어 선생이 입암산성 수축의 책임을 맡아 군량을 비축하기 위한 창고를 건축하고 포루를 새로 마련하여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선조 30년(1597) 왜적이 남원을 유린하고 장성에 침입하자, 주변의 지방관들은 모두 달아나고 선생의 친척들도 피난할 것을 권하였지만 듣지 않고 백여 명 의병을 지휘하여 입암산성을 지켰으나 산성의 함락과 함께 순국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선생을 좌승지(左承旨)로 추증하였다.

임시특별장비

이 비석은 1878~1879년 입암산성에서 별장직을 담당한 임시특의 공덕비이다. 1879년에 비를 세웠으나, 비신 가운데가 부러진 상태로 방치된 것을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에서 수습하였다.

임시특은 종3품의 고급무관으로 창덕궁 위장, 임자도 첨사 등을 역임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모별장은 종9품의 벼슬아치가 맡으나, 입암산성은 그 중요도에 맞게 정3품의 고위직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입암산성 특별전에 전시중이고, 2014년 비석을 보수였다.

입암산성 보루성

입암산의 갈림길에서 입암산성을 지키기 위한 보루성으로 갈림길 능선부에 성곽과 일정한 공지가 있어 보루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루 주변에 30m 정도의 성곽이 남아있어 보루와 주변을 차단하는 성곽유적이다. 입암산성 보루성은 지표상에 옹기와 분청사기 편이 수습되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보루성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됨.

※ 입암산성의 다양한 성곽시설

입암산성 익성

입암산의 본성에 연결되어 있는 날개성(익성)을로 동쪽에는 동암문에서 장성새재를 거쳐 정읍의 삼성산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입암산 등산로를 따라 시루봉을 지나 갈재까지 연결되어 있다. 익성의 대부분은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능선을 따라 토성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몇몇 곳에 보루의 모습도 보인다.

입암산성 옹로

입암산 산판길은 입암산성과 함께 고대의 방어유적으로 추정된다. 입암산성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한 유입로(옹로)로 일정구간 삭토하여 인위적인 길을 만들었다. 현재도 깊은 곳은 사람이 숨어 있으면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산판길이란 벌채하기 위하여 넓게 낸 산길을 말한다. 입암산 산판길은 탐방로 우측 사면에 이어져 있는 길로 탐방로 신설전의 옛길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산판길로 이용되었던 길이다. 입암산은 해방무렵까지 일본인 小林小三郎(소림소삼랑)이 산판일을 하였고, 해방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무렵인 1970년대까지 산판을 하였다고 한다.

입암산성 저수보

입암산성 성내에는 설치되어 있는 저수보로 모두 7개의 저수보를 갖추고 있다. 저수보에 대한 기록은 1750년 제작되었다는 입암산성도에서도 보이는데, 이는 전쟁시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과 이외에 유사시 해자(垓字)의 역할을 하는 방어시설임을 알려준다.

성내에 저수보를 갖추고 있는 산성은 많지 않지만 특히 입암산성의 경우처럼 거대한 저수보 7개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입암산성의 저수보는 큰 것은 길이가 80m, 높이 10m, 폭 7m로 거대한 석축 및 토축으로 만들어져 오랜 기간 보수와 수축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남은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저수보와 입암산성 습지

입암산성 내에 위치한 입암산성습지는 입암산성의 역사와 그 연원을 같이한 습지이다. 입암산성은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축성된 산성으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성내에는 7개의 저수보가 축성되어 있었다. 이 저수보는 유사시에는 남문으로 쳐들어오는 적에게 수공을 펼치는 시설이자 해자역할을 하였으며, 평시에는 산성에 주둔한 군사들의 식수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 저수보와 지형적 특성등이 합쳐져 일찍부터 입암산성에는 습지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산성의 폐성 이후 이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논밭으로 사용하면 습지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한국전쟁이후 흉년과 가난의 이유로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고 1980년대 마지막 거주민이 떠나면서 논과 밭은 다시금 습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